

육계자조금

국산 닭고기 인증제 실시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육계자조금 사업으로 (사)대한양계협회가 사업을 운영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농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축산물품질평가원 등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의 가치와 공정성이 높습니다.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닭고기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안정적인 소비 촉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가 국산 닭고기를 취급하는 닭고기 외식업체 및 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육계소식 대한육계축산업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조합장 및 임원 선출

AI소식 성공적인 재입식 위해 차단 방역과 소독에 힘써야

닭 이야기 프랑스의 국조(國鳥) 수탉을 아시나요?





육계자조금사업, 본격적인 행보 나선다

육계자조금사무국, 대의원회 서면결의 통해 사업 준비 완료

전국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2011년도 육계자조금사업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며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는 지난 3월 29일 2011년도 육계자조금사업계획서(안)에 대한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마무리 하고 올해 사업을 위한 모든 준비단계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승인이 확정되는 대로 육계자조금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면결의는 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난 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발생된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으로 인해 농가들의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대의원회를 대신해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대의원회 서면결의는 전체 대의원 66명 가운데 43명의 대의원이 찬성의견을 전달해 2011년도 육계자조금사업계획서(안)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의 2011년도 사업은 농가의 자질 향상에 힘쓰기 위해 교육 및 정보제공에 주력하는 한편,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적극적인 소비홍보활동을 통해 육계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에 힘쓴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육계자조금사업계획서(안)의 사업규모는 농가거출금 7억1천만원과 정부지원금 7억원, 작년도 이월금액 1억9천만원을 합쳐 총 16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에는 전체 예산의 52.5%에 해당하는 8억4천만원, 소비 홍보 사업에는 2억2천만원(13.8%), 연구용역사업에는 1억8천만원(11.3%) 등을 각각 배정했다. 이밖에도 징수수수료에는 3천500만원(2.2%), 운영비 1억2천241만원(7.7%), 예비비에 1억2천259만원(7.7%)을 각각 배정했다.

한편,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장관수 주임은 “정부의 승인이 결정되는 대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5월에 실시 예정인 전국 육계인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닭고기 요리 경연대회, 양계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공적인 육계자조금 사업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적극적인 자조금 납부가 절실하다”고 전하며 육계자조금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농가를 위한 새로운 **계열화** 모델 만들 것”



대한육계축산업협동조합 **이홍재** 초대조합장

“대한육계축산업협동조합은 농가들을 위한 새로운 계열화 사업의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대한육계축산업협동조합은 지난 4월 20일 안성 농협연수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에 이홍재 초대조합장을 선임했다. 이홍재 조합장을 만나 육계조합의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홍재 조합장은 육계조합을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해 “그동안 농가들은 계열주체들과의 불공정 계약관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계협회에서 계열주체와 꾸준히 협의를 해나가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농가를 위한 계열화사업을 조합에서 만들어 농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육계조합은 아직 정식으로 출범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농식품부로부터 조합 승인을 받아야 하고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가입한 다음에 출범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홍재 조합장은 그 이전에 육계조합의 설립취지를 농가들에게 알려 조합원으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었다.

이 조합장은 조합의 향후 방향에 대해 “우리 육계조합은 생산(사육)만 전담하고 유통은 목우촌(농협)에서 하는 등 조합의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면서 농가이익을 극대화해 나가는데 있다”며 “기존 육계조합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육계농가가 계열주체와의 부딪치는 문제인 병아리와 사료문제에 대해 “신설 육계조합은 병아리를 농가에게 공급하기 이전에 특정 진료소에서 8가지의 검사를 시행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농가에게 공급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책임은 농가가 지는 등 합리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계열주체는 기업으로 이익을 추구하지만 육계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인 만큼 그 이익도 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공유하는 상생의 길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계자조금대의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홍재 조합장은 올해 육계자조금사업에 대해 “작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으며 올해도 지역농가에게 자조금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군 단위의 농가교육을 더 많이 실시해 농가들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조금거출률도 50%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계열주체는 기업으로 이익을 추구하지만 육계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인 만큼 그 이익도 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공유하는 상생의 길을 도모해 나갈 것”





육계품목 전문조합 시대 열렸다!

대한육계축산업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조합장 및 임원 선출

전국 단위로 구성된 새로운 협동조합형 육계품목 전문 조합 시대가 열렸다.

대한육계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홍재)은 지난 4월 20일 안성 농협연수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조합장과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등 앞으로의 본격적인 행보를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딛었다.

이번에 설립된 대한육계축산업협동조합은 수직계열화 사업의 장·단점을 활용, 보완해 계열업체에 의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와 조합, 생산·유통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협동조합형 육계사업으로의 변화를 목표하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양계조합 오정길 조합장,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

영과 변동주 사무관,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 등 각계의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창립총회에서는 앞으로 조합을 이끌어갈 조합장 및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협동조합 초대 조합장에는 육계조합 설립위원회 이홍재 위원장이 추대되었다.

임원 및 대의원은 전국 단위의 조직인 만큼 지역별 분배를 통해 선출하였고 7명의 임원과 조합장을 포함한 총 31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임원 및 대의원 명단은 표 참조〉

이어 한국육계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안) 및 예산을 의결하였다. 기타논의 사항에서는 대의원 선출에 있어 지역적 안배를 다시 고려해 달라는 의견과 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수직계열화인지 수평계열화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이홍재 조





합장은 아직 조합원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장 말씀드릴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 직접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육계축산업협동조합 이홍재 초대 조합장은 취임사에서 “육계조합의 창립총회는 지금은 비록 하나의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육계산업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을 보니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전했다.

또한 이 조합장은 “국민들에게 가장 값싸고 좋은 단백질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육계산업의 위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육계산업도 한우, 양돈처럼 자식에게 대물림 할 수 있는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나 자신부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대한육계축산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현재 육계 산업은 한 가족 3형제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힘을 모으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번 협동조합 설립이 좋은 계기가 되어 육계산업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

다”고 말했다. 🌸

〈대한육계축산업협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 명단〉

임원(총 7명)

지역	이름
경기, 강원	남상길 이사
충북	원용길 이사
충남	주석기 이사
전북	오세진 이사
전남	정성호 이사
경북, 경남, 제주	송영태 이사
※ 감사	장금일 · 김오식 감사

대의원(조합장 포함 31명)

지역	이름
경기, 강원	권순철, 김명기, 오종훈, 전명기, 정상철, 정영상
충북	박인규, 이원규, 이중규
충남	김종득, 박극수, 방진우, 송영대, 이동용, 이종은, 정운광, 한용현
전북	이상식, 윤상호, 진길섭, 한병권, 최완운
전남	김병오, 박미석, 박창훈, 조건택
경북, 경남, 제주	김윤태, 류준희, 백영종, 정영호
※ 조합장	이홍재



성공적인 재입식 위해 차단 방역과 소독에 힘써야

농협, 가금류 재입식 요령 배포... 철저한 준비 필요

농협은 지난해 발생된 AI와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들의 재입식을 돕기 위해 축종별(가금류, 한우, 젓소, 돼지)로 '가축 재입식 요령'을 알리는 교육용 동영상 CD를 제작해 AI 살처분농가와 축협,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단체 및 협회 등에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교육용 동영상 CD에는 축사 내외부에 대한 청소 소독, 소각 매몰 등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다음은 가금류의 재입식 요령을 정리한 것이다.

가금류 재입식 요령

가금류의 재입식 요령은 크게 축사 청소 및 소독, 농장 내 시설 및 주변지역의 소독, 분변의 처리, 성공적인 재입식 준비 등의 4단계로 나뉜다. 축사 청소 및 소독은 4단계에 걸쳐 철저히 실시해야 하고 농장 내 시설 및 주변지역 소독은 적절한 소독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분변은 처리요령을 올바르게 준수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성공적인 재입식을 위해서는 철저한 입식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재입식 전 준비사항

재입식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업자의 안전이다. 따라서 축사 내외부의 청소 및 소독을 시작하기에 앞서 작업자는 독성이 강한 소독제로부터 신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복을 비롯하여 고무장갑, 고무장화 및 마스크와 보호안경 등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성공적인 재입식을 위해 4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재입식 요령을 올바르게 준수해야 하고, 작업자는 고무장갑,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 축사 청소 및 소독

축사의 청소 및 소독은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축사 내 바닥 및 분변을 소독하고 훈증 소독을 거쳐 환기를 시켜야 한다. 육계농가의 경우 먼저 축사바닥에 생식회를 살포하여 제거되지 않은 분변과 바닥을 소독 처리하는데 생식회는 pH 11~12의 강알칼리성으로 물과 접촉시 200℃ 이상의 강한 열이 발생하므로 이 열로 소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해 화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축사바닥과 분변 등의 소독이 끝난 후에는 포름알데하이드 블록제제 등을 이용하여 축사공간 전체를 훈증소독하는데 이 블록제제 한 개당 약 100㎡의 축사소독이 가능하며 훈증소독은 높은 온도에서 더욱 효과적이므로 동절기에는 축사내 열풍기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절한다. 훈증소독시 축사내 밀폐가 중요하며 포름알데하이드 가스를 이용해 소독할 시 15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충분한 소독시간을 갖는다. 훈증소독을 마치면 하루 이상 축사를 충분히 환기시켜 포름알데하이드 냄새를 제거한 후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축사내 전기시설을 비닐로 덮어 분무소독시 소독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전기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축사내부는 세정제 겸용 소독제를 이용하여 세척·소독하는데 천장부터 시작해서 벽면, 바닥 순으로 실시한다. 위에서 아래로 체계적인 진행방향을 유지함으로써 재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축사의 부 소독은 내부만큼이나 중요하므로 지붕부터 꼼꼼하게 소독하고 구석진 곳 등 제거하기 어려운 장소에 있는 분변 딱지는 토치를 이용하여 소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축사 내부 소독시 잔존해 있는 유기물을 말끔히 제거하기 위해 소독약의 농도를 평소보다 높여 희석해야 한다. 단, 소독제는 축사내 기구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고 강알칼리성 소독제와 강산성 소독제는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소독액 살포가 끝난 후에는 첫 번째 단계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하이드 블록제제 등을 이용하여 축사 내부 전체를 빠짐없이 한번 더 소독한다. 방법은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다.

세 번째 단계와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서 이와 같은 소독과정을 두 차례 더 반복해 주면 된다.

2. 농장 내 시설 및 주변 소독

농장 내 시설 및 주변 소독 역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침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우선 농장 입구에 3.3㎡당 1kg이상의 생석회를 뿌리고 축사주변 지역은 충분한 양의 소독제를 살포한다. 매몰지 주변 지역 역시 생석회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소독해 주는데 생석회는 소독효과뿐만 아니라 쥐 등의 설치류의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자재창고, 사료창고, 사무실과 같은 공간은 먼저 청소를 실시하여 오염된 물건을 수거하고 고병원성 AI에 노출되어 완전 소독이 불가능한 물건은 따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이 후 축사처럼 포름알데하이드 블록제제 등을 이용하여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축사내 모든 청소와 소독이 끝난 후에는 앞서 수거한 오염된 물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소각 처리하고 소각이 끝난 자리는 소독액을 살포하여 재오염을 방지한다.

3. 분변의 처리

이동제한 기간 중 닭의 분변은 저장고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독 후 보관하거나 농장 내 또는 인접한 부지에 매립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축의 분변을 농장내에 매립할 경우 분변의 퇴적층이 15cm 이상이 되면 생석회를 도포하여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없도록 한다. 생석회는 분변의 양에 비례하여 조절해 주고 소독이 끝난 후에는 비닐을 덮어 완전히 밀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독 후 보관중인 분변은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분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매몰·발효 처리할 수 있고 60일이 지난 후 분변검사의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에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분변을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반출기록을 반드시 작성하여 분변의 이동상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변 검사 후 반출되는 경우라도 분변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 재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위해 차량 외부뿐 만 아니라 내부 역시 소독수건을 이용하여 운전자와 빈번하게 접촉하는 부위를 빠짐없이 소독하고 바닥 또한 소독액을 살포하여 철저하게 소독한다. 분변처리와 관련된 장비소독 역시 중요한데 스키로더는 내·외부에 묻어있는 분변찌거기를 철저히 소독하고 1일 1회 이상 소독을 3일간 반복한다.



4. 성공적인 재입식 준비

성공적인 재입식을 위해서는 입식시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관할 시군은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 농장 소유자 등에 대해 소독, 시험가축 선정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한다.

또한 해당 농장의 축사 청소 및 소독 상태를 면밀히 검사하고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분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시험을 허용한다. 입식시험 기간은 고병원성 AI의 최대잠복기인 3주간에 걸쳐 실시되는데 육계의 경우 AI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6~12주 사이의 병아리를 시험가축으로 사용하고 계사 당 5수 이상을 입식한다. 이 후 시험가축을 3주 동안 임상검사하고 혈청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재입식이 허용된다. 또한 육계의 경우 입식시험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시험가축이 오염가능성이 있는 장소와 충분히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까지는 이틀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주 2회 임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고병원성 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장에 출입하는 전 차량에 대해 외부와 내부를 철저히 소독하여 바이러스의 유입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또한 사료 기자재 창고는 축사외부에 설치하여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다.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역시 바이러스의 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대인소독을 마치고 출입처관리기록을 작성한 후 방역복장을 갖추어야만 농장출입을 허용하도록 한다. 또한 고무장화는 농장외부, 농장내, 축사내부용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

AI 이동제한 지역 5월중 모두 해제, 종식 임박

농식품부, 총 52개 지역 중 49곳 이동제한 해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AI 관련 이동제한을 해제하면서 이동제한이 제한된 곳은 전국에 단 3곳만 남게 되어 빠르면 5월 중으로 AI가 종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4월 24일 현재 AI 관련 이동제한지역 총 52곳 중 경기도 용인과 경북 영천 2곳을 제외한 49개 지역에서 이동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94.2%의 이동제한 해제율을 보이며 더 이상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을 경우 4월 6일 발생한 영천지역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5월초에는 이동제한이 모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이동제한 해제 현황을 보면 2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피해가 가장 많았던 전남은 지난 4월 6일 담양과 고흥을 마지막으로 모든 지역에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고 충남지역과 전북, 경남지역도 모두 AI 관련 이동제한이 해제되었다. 전남 다음으로 많은 피해를 봤던 경기도는 AI 발생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용인지역만 남겨두게 되었고 경북은 영천지역 2곳이 아직 이동제한지역으로 남아있다.

한편, 지난 4월 20일 강원도 횡성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된 닭의 폐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로 판명돼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

AI 발생 및 신고현황(4월 24일 기준)

(단위 : 건)

신 고 건 수			검 사 실 적			
전일누계	4월 24일	누 계	양 성	음 성	검사중	계
102	0	102	52	50	0	102

▶ 발생지자체 : 6개 시·도 24개 시·군(경기 17, 충남 6, 전북 2, 전남 23, 경북 3, 경남 1)

- **경기**(안성 4, 이천 4, 파주 1, 양주 1, 평택 3, 화성 1, 동두천 1, 여주 1, 용인 1) / **충남**(천안 5, 아산 1) / **전북**(익산 1, 고창 1) / **전남**(영암 9, 나주 8, 화순 1, 장흥 1, 여수 1, 보성 1, 담양 1, 고흥 1) / **경북**(성주 1, 영천 2) / **경남**(양산 1)

AI 관련 이동제한 해제 현황(4월 24일 기준)

(단위 : 개소)

시·도	이동제한 시·군	해제 시·군	잔여 시·군
경기(17)	안성(4), 이천(4), 평택(3), 파주(1), 양주(1), 화성(1), 동두천(1), 여주(1), 용인(1)	안성(4), 이천(4), 파주(1), 양주(1), 평택(3), 동두천(1), 화성(1), 여주(1)	용인(1)
충남(6)	천안(5), 아산(1)	천안(5), 아산(1)	-
전북(2)	익산(1), 고창(1)	익산(1), 고창(1)	-
전남(23)	영암(9), 나주(8), 화순(1), 장흥(1), 여수(1), 보성(1), 담양(1), 고흥(1)	화순(1), 장흥(1), 여수(1), 나주(8), 보성(1), 영암(9), 담양(1), 고흥(1)	-
경북(1)	성주(1), 영천(2)	성주(1)	영천(2)
경남(1)	양산(1)	양산(1)	-
계	52개소	49개소	3개소

야생조류분변에서 저병원성 AI 검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가에 철저한 차단방역 요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 4월 22일 충남 금강하구에서 채취된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에 철저한 AI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검역원은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됐다는 것은 아직도 야생조류의 분변을 통하여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가금사육농가들에게 철새도래지를 포함한 소하천 및 저수지 등의 야생조류 출몰지역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장 및 축사 주변에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가금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을 통제하는 한편, 모든 축사 입구에는 소독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축사내 전용신발 및 작업복을 두고 축사 내에서는 전용신발 및 작업복만 착용해야 하고 AI 의심축이 발견되는 즉시 해당 시군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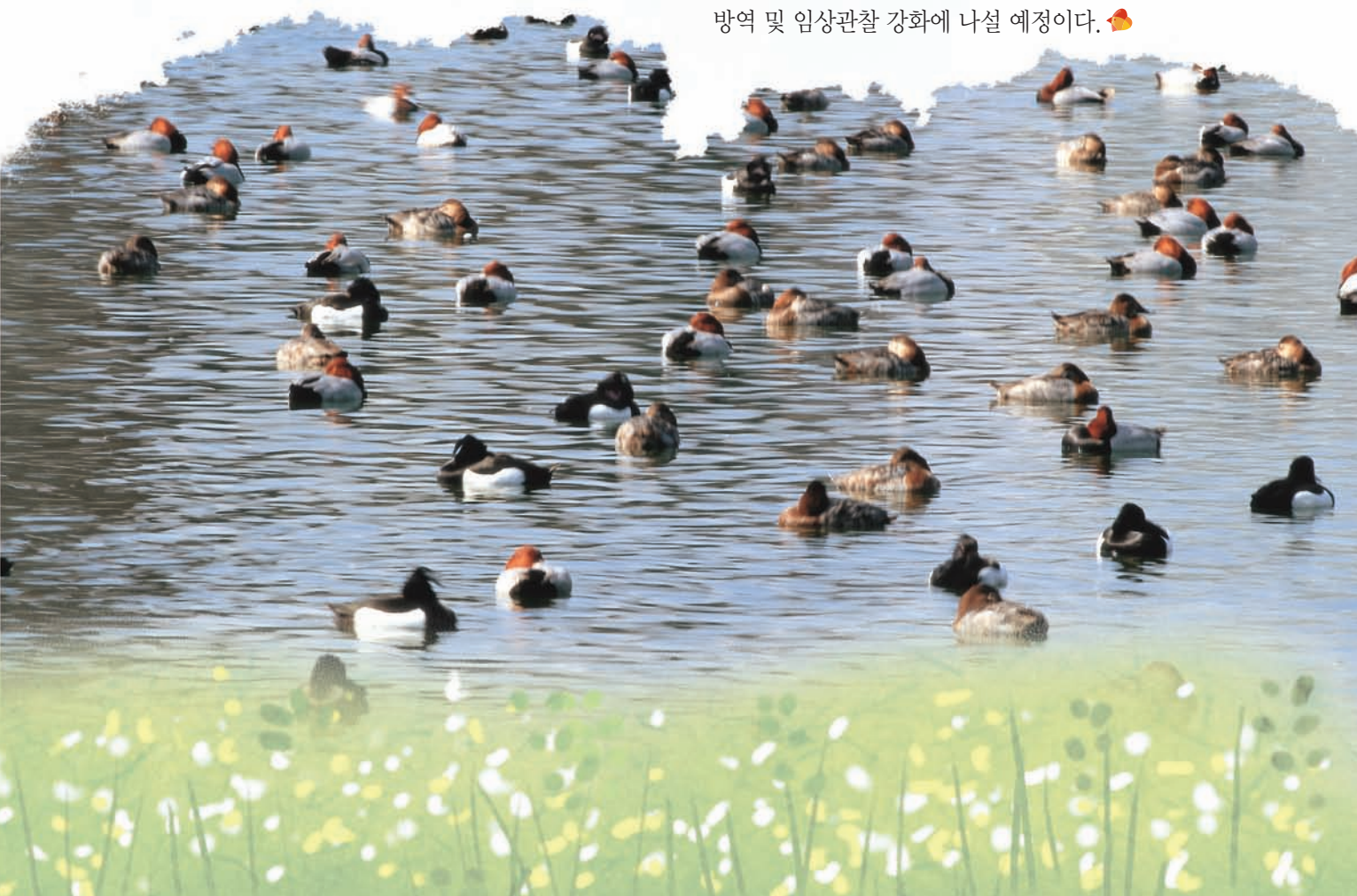
횡성 폐사 닭, 저병원성 AI로 판명

강원도 횡성의 한 농장에서 닭이 폐사한 원인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군은 지난 4월 20일 오전 횡성을 반곡리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한 30마리의 닭을 수거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염성이 낮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 H9)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강원도내 지자체들은 20일 AI로 의심되는 닭의 폐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횡성군을 포함한, 원주, 홍천, 평창 등의 4개 지역에서 축산농가들의 모임 자제를 요청하고 차단방역 초소 재설치 지시를 내린 상태였다.

또한 횡성군은 고병원성 AI에 대비해 관련 공무원들을 대기시키고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 1만8천마리에 대한 매몰처분 작업준비를 마쳤으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결과 저병원성으로 밝혀져 매몰처분을 취소하고 자체 방역 및 임상관찰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AI 유입 방지해야



정충식 사무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철새 등 야생조류와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건이 검출되었다. 5건은 철새도래지 분변에서, 15건은 야생조류에서 검출되었다. 정말로 전무후무한 실적이다. 검역원이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사업을 실시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온 적은 있어도 이처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적은 없었다. 사실 20건이라는 실적만 본다면 정말 적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 20이란 숫자에 포함된 사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은 우리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겨울 철새도래지나 저수지 주변을 차를 타고라도 지나가 보면 수많은 철새들이 평화롭게 먹이를 먹는 또는 휴식을 취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철새들이 갑자기 떼를 지어 비상하는 장면은 한마디로 ‘장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철새와 20이라는 숫자를 연관시켜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철새 중 한정된 수의 폐사체와 분변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한다. 아마 전체 철새수와 검사된 폐사체와 분변의 비율을 생각하면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소수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된 폐사체나 분변을 찾아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되는 폐사체를 검사하고 철새도래지 부근에 많이 볼 수 있는 분변을 무작위로 검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역으로 추론한다면 그 많은 철새 등 야생조류의 상당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또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언제든지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대부분의 철새 등 야생조류에 감염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육



계농가는 조금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항상 몸에 배어있는 AI 차단방역으로 바이러스가 농장내로, 축사내로 그리고 우리의 닭으로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면 된다.

철새 등 야생조류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될 수 있는 전파경로의 차단에 대하여 설명하면 야생조류에 의한 AI 전파방법은 야생조류와 가금의 직접접촉(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분변 등 오염원을 통한 간접접촉이 있다. 우선 농장 주변에는 그물망 등을 쳐서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축사가 무창계사로 출입문에 그물망이 쳐져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육계농장의 경우, 일반축사나 하우스에서 키우면서 윈치커튼 등으로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윈치커튼이 열려있을 때를 대비하여 환풍창이나 출입구 등으로 야생조류의 침입을 막기 위해 그물망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축사 주변이나 농장 주변에 새들의 먹이감(사료 찌꺼기, 잔반 찌꺼기 등)과 야생조류 분변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을 실시한다(1일 2회 실시). 또한 농장 관리자 등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분변을 묻혀 농장이나 축사 안으

로 들어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장 밖 외출이나 논·밭으로 농사일을 하러 갔다 농장에 들어올 때는 머리, 손, 발 등 외부와 접촉될 수 있는 부분을 씻고 농장에서 입는 작업복·작업화로 갈아 신어야 한다. 그리고 각 축사에 전용 작업복·작업화를 두고 축사 입구에는 발판소독조를 운영하여 농장 내 각 축사 출입 시, 축사 전용 작업복·작업화를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한다. 육계농장의 관리자 등은 겨울철에 철새도래지나 저수지 주변 논 등에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염된 농장의 관리자 등에 의한 전파이다. 특히 육계 사육을 처음 시작하는 분 들은 친척이나 이웃에서 질병이나 사양관리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구하곤 한다. 이때 만일 이미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된 농장의 관리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게 될 경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장과 축사를 출입시키고 서로 상의하게 된다. 이때 그 오염된 관리자 등에 의해 주변 농가가 집단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농가 관리인 등이 아는 사실이지만 다른 가금 사육농가의 출입은 삼가야 한다.

세 번째 유입요인은 질병에 걸린 가축의 입식이다. 동물이 특정 질병의 잠복기에 있거나 또는 질병에 걸렸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바이러스를 방출하는 동물의 입식이다. 물론 많은 농가에서 이러한 전파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입식 동물 전용 축사를 운영하고 현재 있는 가축과는 별도의 관리를 하면서 질병의 발생 추이를 관찰하고 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현재 가축과 합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네 번째 유입요인은 사료·동물약품 등 농장 출입차량에 의한 질병의 전파이다. 예를 들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을 방문한 사료나 동물약품 운반 차량(또는 사람)이 농장과 축사를 출입할 시에는 신발·옷·작업용 장갑 및 차량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가 다른 농장이나 축사 내

로 전파되고 결국 가축에 전염될 수 있다. 동물약품이나 사료 배송 차량이 올 경우, 농장 입구에 청결한 하차장소를 만들어 그곳에서 물품을 내려놓고 농장 내 전용차량으로 농장 내로 반입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일 불가피하게 방문자 및 차량이 농장을 출입할 경우 차량 내·외부(특히 차량내 발판 부분)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역복 및 방역화를 제공하여 농장 내에서는 농장 내 전용 방역복 및 방역화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직접 가축과 접촉하는 사람의 경우 특히 축사 전용 방역복·방역화를 착용하고 노출부분은 씻고 소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농장 밖으로 나올 때에도 세척·소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금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친척, 친구 등의 농장 방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농장을 꼭 방문해야 할 경우, 상기의 차단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장 내 AI 차단방역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독약도 산성제제가 있고 염기성 제제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소독약을 쓸 경우, 아무리 소독을 잘 실시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한 가지 소독약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설명이 필요하겠으나 여기서는 AI 차단 방역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육계사육농가에서는 위와 같이 설명한 것을 농장에 잘 적용시켜 AI 차단방역에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얼마 전에 가금 사육농가 농장주들 몇 분을 만난 적이 있다. 대부분의 농장주나 관리인이 차단방역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행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방역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도 조차하지 않는 농장주나 관리인이 있다는 것에 우리나라 축산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육계농장에서 차단방역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농가 방역수칙을 소개 하고자 한다. 🍎

농가 방역 수칙

1. 철새도래지·서식지 등 오염지역 출입금지

- 철새 도래지 및 서식지, 저수지, 하천, 습지, 인근 논·밭의 출입 금지

2. 농가 자율 방역 강화

- 가금농가의 철새도래지·서식지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저수지·하천·습지 및 인근 논·밭 등) 출입금지, 부득이 하게 출입 시 철저하게 세척·소독 실시(신발·의복 등)

- 축사 그물망 설치, 주변 청소 등 야생조류 접근 차단 실시
- 가금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소독 철저
- 1일 2회 이상 축사 내·외 소독 실시
- 모든 축사 출입구 소독조 설치
- 축사 내 전용 작업복·작업화를 두고 축사 내에서는 그 전용복 장만 착용
- 외출(특히 도보)할 경우, 같은 복장·신발을 신고 축사 출입금지
- 의심축 발견시 신속 신고(1588-4060, 1588-9060)

프랑스의 국조(國鳥) 수탉을 아시나요?

수탉은 프랑스인들의 자부심을 상징



“수탉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동물로 통했다고 한다.”

1998년 프랑스월드컵 당시 마스코트로 대활약한 ‘푸티스’는 수탉을 형상화한 캐릭터였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도 프랑스 대표팀은 수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했다. 이처럼 프랑스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등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면 어김없이 수탉을 등장시킬 만큼 수탉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엄청나다. 수탉은 프랑스와 그 역사의 궤를 같이 했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아온 동물이다. 과연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수탉의 매력은 무엇일까?

수탉이 프랑스의 상징이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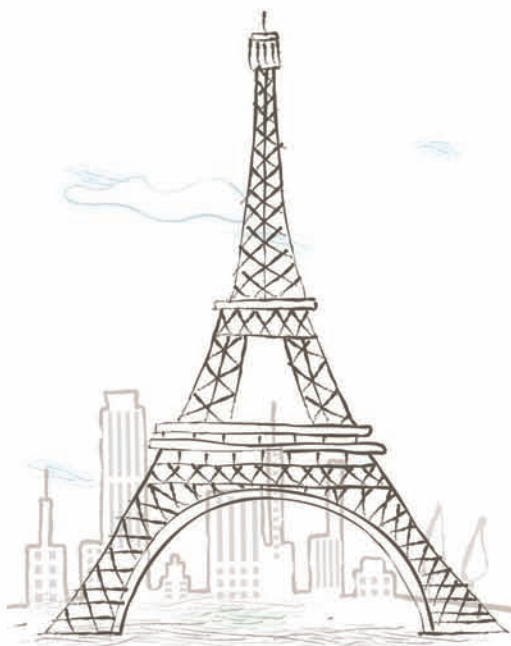
프랑스의 상징물이 수탉이 된 기원은 저 멀리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민족은 고대 갈리아(gallia)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갈리아족은 프랑스의 골(Gaule)지방에 정착하게 되는데 갈리아는 라틴어 gallus에서 온 것으로 gallus는 ‘골 지방의 사람’이라는 뜻과 함께 ‘닭’을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수탉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동물로 통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탉이 항상 좋은 의미로만 쓰이지 않았다. 한때 시민들은 프랑스의 왕을 우스꽝스럽게 비꼬기 위해 수탉에 비유하기도 했고 나폴레옹은 ‘수탉은 정력이 부족하므로 프랑스와 같은 대제국의 상징이 될 수 없다’고 하며 수탉을 프랑스의 상징물로 사용하기를 거부하며 독수리로 대체하려는 시도도 했었다. 하지만 이미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는 수탉의 야생성, 서민적인 느낌, 용감함 등이 프랑스인들의 기질과 동일시 돼 있었고 1830년에 제정된 법령은 이를 재천명하였다. 이후 나폴레옹 3세때인 제3공화국 이후부터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상징물이 되었다고 한다.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프랑스의 상징물 수탉

역사 속에는 수탉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임을 입증하는 다양한 증거들이 존재한다. 고대 갈라스족은 수탉을 새겨 넣은 주화를 사용했고 1729년과 1793년도 주화의 뒷면에도 수탉이 새겨져 있다. 16세기부터 프랑스 왕들은 조각 등에 수탉문양을 새기기도 했으며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들은 수탉을 형상화한 모자를 쓰고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을 만큼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수탉은 프랑스의 상징물로 폭넓게 사용되었다.

또한 제2공화국 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프랑스의 국새 위에는 자유의 여신이 수탉이 장식된 지휘봉을 들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고 19세기 말에 지어진 프랑스 대통령들의 숙소인 엘리제궁 정원의 쇠창살은 수탉모양이 장식돼 있다. 이밖에도 성경에 닭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교회의 첨탑에는 풍향계와 함께 수탉이 자리 잡고 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 세워진 희생자 기념비에도 어김없이 수탉이 등장한다. 🐓



치킨을 이용한 색다른 닭고기 요리

치킨피자 & 치킨 화이트

최근 유행어 중에 ‘치맥(치킨과 맥주)’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맥주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안주로 치킨이 떠오른다. 우리가 흔히 먹는 치킨은 닭을 기름에 튀기거나 오븐에 구워 먹는 형태의 요리를 생각하지만 치킨은 다양한 요리재료로도 만들 수 있다. 오늘밤 색다른 치킨 요리로 맥주 안주를 해보는 건 어떨지. 🍷



치킨 피자

재료

닭 1마리, 우유 1컵, 마늘가루 1큰술, 청·홍·황피망 각 1/2개, 양파 작은 것 1/2개, 피자치즈 100g, 버터 2큰술, 올리브 5개, 후추, 소금, **피자소스 재료**(다진마늘 1작은술, 다진양파 4큰술, 다진샐러리 1큰술, 다진양송이 1큰술, 케첩 1/3컵, 설탕 1/2큰술, 육수 1/2컵, 핫소스 1큰술, 월계수 1장, 오레가노 1작은술, 소금, 후추)

만들기

- ① 닭은 통째로 깨끗이 준비하여 뼈는 발라내 두드려 가면서 편편하게 정리한 다음 칼끝으로 여러군데 찍어 덜 오그라들게 해 놓는다.
- ② 우유, 마늘가루, 후추, 소금을 혼합한 액에 ①의 닭을 5~8시간 가량 담가둔다.
- ③ ②의 닭을 건져 물기를 제거해 놓는다.
- ④ 전기팬에 버터를 듬뿍 두르고 녹으면 은근한 불에서 ③의 닭을 놓아 허브를 발라가며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구워낸다.
- ⑤ 청·홍·황피망과 양파는 링으로 썰고 올리브도 얇게 썰어 놓는다.
- ⑥ 팬에 마늘, 양파를 넣어 볶아 향이 나면 샐러리, 양송이, 케첩, 설탕 순으로 넣어 볶으면서 육수를 붓고 월계수, 오레가노, 후추, 핫소스를 넣어 걸쭉하게 끓여 피자소스를 만든다.
- ⑦ ④의 구워진 닭 위에 피자소스를 듬뿍 바르고 그 위에 피망링, 양파링, 올리브를 얹은 다음 피자치즈를 얹어 뚜껑을 덮어 노릇노릇하게 구워낸다.

치킨 화이트

재료

닭가슴살 300g, 홍·청피망 썰은 것 각 100g, 양파 썰은 것 150g, 파프리카 썰은 것 100g, 버터 3큰술, 소금 1/2큰술, 갓익 썰은 것 3장, 사워크림 1/2컵, 다진실파 2큰술, 포피야(지름 20cm정도) 6장, 후추 1작은술, 파인애플 1쪽, **마리네이드 소스**(올리브오일 1/2컵, 라임주스 1/2컵, 간장 1/2컵, 꿀 1/2컵, 우스타사워소스 1/2컵, 같은 마늘 2큰술, 같은 통후추 2큰술, 다진고추 5g, 마른 월계수잎 1장)

만들기

- ① 닭가슴살은 물기를 닦아 놓는다.
- ② 마리네이드소스 재료를 밀폐용기에 넣고 섞어준 다음 ①의 닭살을 넣어 버무려 8시간 정도 재운다.
- ③ 팬에 버터를 넣고 썰어놓은 양파, 청피망, 홍피망, 파프리카를 넣고 센불에서 물기가 생기지 않게 볶아준다.
- ④ ③의 볶은 채소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다음 실파와 갓익을 넣고 다른 접시에 옮겨 놓고 식힌다.
- ⑤ 미리 예열된 팬에 버터를 넣고 마리네이드 된 ②의 닭가슴살을 노릇노릇하게 구운 다음 1cm 간격으로 자르고 팬에 썰은 파인애플도 구워준다.
- ⑥ 뜨겁게 달구어진 철판에 채소를 깔고 그 위에 닭가슴살과 파인애플을 놓고 다른 접시에 포피야와 사워크림을 준비한 뒤에 포피야 속에 각각의 기호대로 사워크림을 바르고 닭가슴살과 채소를 싸서 먹는다.



계분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순환발전소 운영

농경연, '일본의 계분 자원화 사례와 시사점' 에서 밝혀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들의 걸끄러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계분처리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계분을 이용해 전력을 만들어 판매하는 바이오매스(biomass, 생물연료) 순환발전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연구위원이 발표한 '일본의 계분 자원화 사례와 시사점' 연구논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계분을 원료로 한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을 이용해 전력과 비료를 생산하여 경영안정은 물론 CO₂ 배출 저감, 고용창출 효과까지 일석 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논문에 따르면 일본 미야자키현에서는 계분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1월 '가축분뇨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축산 관계자들은 계분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5년 양계조합, 육계회사, 전력 관련업체의 공동 출자에 의해 설립된 바이오매스 순환발전소는 계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소로서 계분을 적절히 활용해 전력 및 비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계분 처리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육계농가의 경영안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미야자키 바이오매스 순환 발전소, 일본 최대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

미야자키 바이오매스 순환발전소는 계분을 원료로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일본 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로 지난 2005년 5월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발전소는 지속적인 계사분뇨 공급에 의해 운영되고 있



는데 발전소에 반입되는 계사분뇨는 하루에 약 440톤으로 여기에서 약 1만1천350kW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소각에 의해 발생하는 연간 약 1만3천 톤의 소각재는 비료 원료로 판매되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발전소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제외한 약 9천kW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계분을 이용한 전력, 지구 온난화 대책에 공헌하는 '그린전력'

태양 에너지, 풍력 등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CO₂절감을 통해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어 '그린 전력'으로 불리고 있다.

미야자키 바이오매스 순환발전소에서도 석탄 등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CO₂증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계분을 소각함으로써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CO₂의 배출을 줄일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CO₂배출 삭감 효과는 연간 6만5천~7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발전소는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직원을 고용, 지역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미야자키 바이오매스 순환 주식회사 기업 개요>

명칭	설립 등	소각수량	발전출력	용도	참고
미야자키 바이오매스 순환(주) (미야자키현 카와미나미쵸)	설립 2003년 운전 2005년	하루 440톤 연간 13만2천 톤	1만1천350kW	판매급 시설동력	국내최대의 계분발전 설비, 연간 1만7천~1만8천가구 상당의 가정용 전력을 공급

계분의 수분량이 발열량의 차이 가져와 수분이 적을수록 발열량 높아

분뇨는 사육 여건과 축종에 따라 수분함량이 서로 다른데 분뇨에 수분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발열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분의 수분함유량은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육계의 경우 톱밥 위 사육, 즉 평지 사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뇨는 자연적으로 톱밥과 섞인다. 따라서 계분의 수분함유율은 아무리 높아도 50% 미만이므로 발열량이 일반 쓰레기보다 높다고 한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계사에 급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분함유율이 타 계절에 비해 높아지는데 수분함유율이 높은 계분은 다른 소각물과 혼합하여 수분함량을 낮추거나 소각·폐열 등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통해 비용을 줄여야 하며 수분함유량을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

육계경영, 연간 회전수가 승부의 갈림길

일본에서의 육계 사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육성물과 사료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괄입식-일괄출하(all-in all-out)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 계사에서 닭을 사육하여 같은 시기에 육계를 출하하는 방법으로 계사에서 계분을 처리하고 소독한 후에 새로운 병아리를 입식할 수 있는 구조이다.

미야자키현에서는 평균적으로 계사 1동(200평)당 9천~1만 수가 사육되며 가구당 육계농가의 규모는 4~5동이다. 1동당 발생하는 계사분뇨의 발생량은 20톤 정도로 1년간 발생하는 분뇨를 개인이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변 주민과의 타협, 분뇨 처리 비용이 분뇨 처리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계사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순환발전소를 통해 육계경영에서 계사분뇨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고 경영에 안정감을 얻어 사육량 증가와 같은 규모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농가 단위에서 계사분뇨를 처리하는 데 드는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환경 문제 등 주변주민의 정신적인 부담도 감소했다고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가축분뇨의 수거, 이용, 전력생산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양한 집단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하나의 사업으로 정착시킨 점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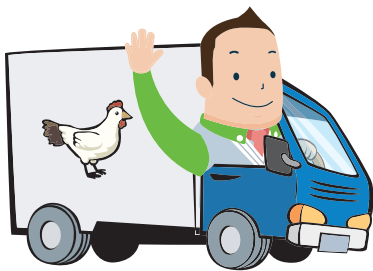
일본의 계사분뇨의 발전 사업의 시작은 축산업과 전기 산업 각각에 주어진 새로운 법률구조 때문이었지만 미야자키 바이오매스 순환발전소에서 축산업과 전기 업무는 타 업종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공생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의 존재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계사분뇨 발전에 관한 담당자가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발상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육계 농가는 계사분뇨를 처리하는 데 있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전력 사업자는 계사분뇨를 새로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 인식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처리의 관점에서 이용의 관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전력 사업자는 전력 공급에 있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계사분뇨를 소각하여 CO₂삭감 의무에 공헌하는 ‘그린 전력’이라는 새로운 환경 가치를 만들어 내는 등 환경 문제도 풀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가축분뇨의 수거, 이용, 전력생산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양한 집단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하나의 사업으로 정착시킨 점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축산경영과 가축분뇨를 활용한 발전소의 연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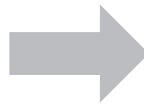
육계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처리절차

- 거출시작일 :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 수납기관 : 전국 도계장 대표자
- 거출금액 : 육계 3원, 삼계 1.5원, 재래닭 4.5원, 육용종계 30원(수당)
- **농가 직접 납부시 계좌번호 :**
농협 301-0017-6070-01(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농가출하

육계,삼계,재래닭,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도계장)

수납기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제11조제3항)



농가 직접 납부

도계 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징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일월 5일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도계장)